

## 핵심인재 육성과 금융노하우를 접목시켜 사료업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

동아원(주) 이창식 대표이사의 열정 혹은 야망

동아사료  
▣ 동아원(주) 이창식 대표이사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라”

- 압 하이젠휴이스 유  
니레버 前부회장

“인재가 없다면 도요  
타 방식은 껌데기다”

- 제프리 라이커 미시  
간대 교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살아남은 者가 강한 者라는 “生存”의 키워드가 21세기를 관통하고 있다. 이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경영의 모토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



에 “인재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결국 생존을 넘어 타 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 영업 현장을 직접 지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 성공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대표적인 회원사와 그 경영인을 사료誌에서 만났다. 그는 다름 아닌 최근 사료기업에 대한 매스컴의 총아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동아원(주) 이창식 대표이사. 금월호 인물포커스의 주인공이다.

동아원(주)는 제분업계의 선두주자인 동아제분과 과거 신촌사료로 유명한 에스씨에프의 합병으로 탄생한 사료업계의 중견기업이다. 2015년에는 국·내외 사료생산량 100만톤을 달성하여 로컬 Top 5로의 진입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창식 대표이사는 사료업계 CEO 중에서 몇 안되는 금융 전문인 출신으로 동아원 대표이사에 취임한지 만 3년이 안되면서도 동업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다. 초겨울에 들어서서는 12월 초 동아원(주)를 들어서면서 고즈넉한 당진마을과는 달리 막 회의를 마친 임직원의 팽팽한 긴장감과 아울러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이창식 대표이사는 특유의 넉넉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했다. 먼저 최근 불경기를 맞아 각 기업들이 홍보예산을 줄이는 등 외부노출을 자제하고 있는 시점에 동아원(주)는 적극적인 기업PR에 나서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우리 동아원(주)의 모태인 운산그룹은 이용구 선대회장이 1952년 도정업과 제분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로 B to B(기업 대 기업)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물론 와인유통을 담당하는 ‘나라식품’ 등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종합식품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에스씨에프’와의 합병을 통해 ‘동아원(주)’를 출범시켰고 이제는 B to C(기업 대 소비자)로의 선택과 집중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 ■ 취임이후의 평가와 목표

Q. 취임이후 평가할 수 있는 업적은?

A. “동아원(주) 대표이사로서의 취임은 동아제분과 에스씨에프가 합병된 지난해 12월이었지만 2007년부터 에스씨에프를 인수하고 동아제분과의 합병작업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수후통합(PMI) 과정을 원만히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Q. 사료분야에서는 직접적인 경영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향후 목표는 어떤지요?

A. “취임이후 양돈사료 부문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사료생산량에서 국내 전체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는 월 평균 생산량이 전년대비 7%대의 성장률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캄보디아에 각각 1개의 배합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해외공장을 5개까지 늘려 국내외 사료생산량을 100만톤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동아원(주)가 나아갈 목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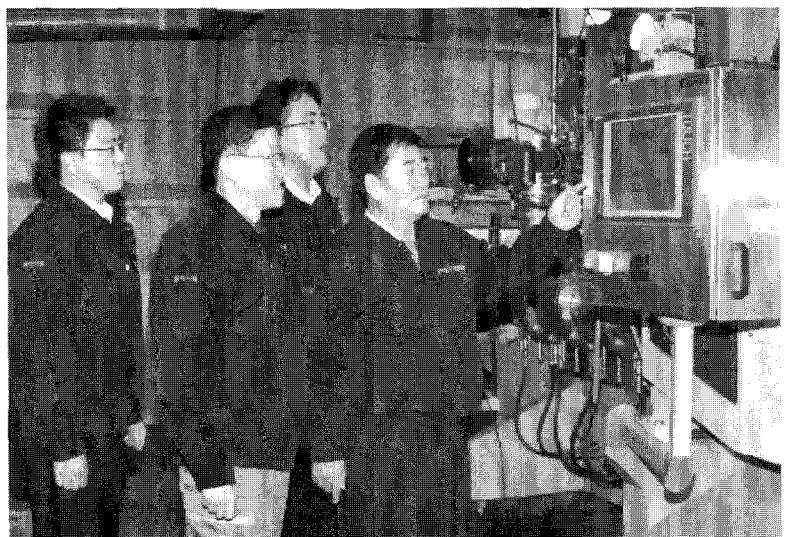
A. “동아원(주)는 ‘2015년 매출 1조원의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는 중심목표아래 3가지의 각 사업부별 실행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분사업의 경우 시장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전략을 실천 중이며, 사료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제품군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국내 Top 5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7년에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코지드(KOGID)와 SCF캄보디

아 등의 계열회사를 통해 유통형태의 새로운 곡류, 특히 옥수수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프라 구축단계라 큰 성과가 도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인 집하 및 건조장이 본격 가동되고 향후 포트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운영될 경우 해외사업부에서만 2015년까지 4,3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원(주)는 사료산업의 안전성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경영목표가 나오면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경영비전과 특히 금융인으로서의 CEO와 축산인으로서의 CEO의 역할과 차이점으로 옮겨갔다.



◆ 직접 공장을 돌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도 한다.



◆ 결재하는 모습

### ■ 경영철학과 비전

Q. 최고경영자로서의 경영이념은 무엇입니까?

A. “인재경영, 즉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취임 초기부터 조직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사내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최고경영자와 임직원만이 아니라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이념의 바탕에는 △인간존중 △고객중심 △가치지향 △열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열정이라는 동아원의 기업이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인재육성을 통한 창조경영”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러한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A. “취임이후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았고(최근 국내 최고 수준의 양돈사료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 인재발굴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직원 조직문화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효율적 회의진행과 시간경영 문화를 통해 헛된 시간낭비로 생

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 8시에 하는 경영자 Daily 미팅, 매주 목요일 비상경영본부 미팅, 월간영업회의, 부문별 전략회의 등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도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Q. 사료업계에서 드른 법학전공 겸 금융 CEO 출신이신데요. 비 축산전공자로서 어려웠던 점과 금융인 출신으로 본 사료기업의 경영노하우 같은 것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기업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금융기업과 사료기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 쪽은 사람들도 그렇고 돈(자본)의 특성상 드라이(건조)한 면이 있는 반면 사료기업을 경영하고 보니 사람과 영업에 있어 인간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웃음). 반면 금융쪽의 베스트프랙티스라 할수 있는 스피디한 경영은 사료 쪽이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스피드 경영을 우리 동아사

료에 접목시켜 지금까지 사료경영과는 다른 새로운 바람과 유행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료협회에서도 동아원(주)라는 회원사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Q.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유년시절과 기억나는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A. “부모님께서 ‘케네디’가를 이상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교과과목에 대한 학습보다는 전인교육에 힘쓰셨으며 덕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웃어른 및 형, 누나들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산과 바다, 그리고 들녘 곳곳을 뛰어다니며 자연과 어울린 경험들이 은연중에 ‘제분과 사료’라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성격과 그러한 성격이 임직원들과의 소통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A. “저는 전형적인 O형의 성격입니다.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며, 의사결정과 감정표현이 즉각적이나 뒤끝은 없습니다(웃음). 이러한 제 성격은 조직관리에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발전가능성이 능후한 임직원 및 후배들에게는 잔소리도 많이 하며 동기부여를 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장으로서의 격을 차리는 것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시여기고 사무실 안은 물론

엘리베이터, 휴게실 그리고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 수단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시간 여에 걸친 결코 짧지 않은 인터뷰를 마치고 오면서 동아원(주) 이창식 대표이사는 그 넉넉한 웃음만큼이나 인간적인 면모가 물씬 묻어나는 CEO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금융인 출신답게 숫자와理財에 밝은 점을 엿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축산과 사료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식견과 지식 또한 숨기지 않았다. 경영인으로서 그러한 장점과 인간적 매력을 십분 발휘하여 인재경영이라는 그의 비전을 통해 동아원(주)가 국내 5대 사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료誌의 지면을 통해 계속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

〈글 홍성수 차장, 사진 권영길 차장〉